

美 의회특위, 트럼프 반란선동 등 혐의 기소권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처벌 권고

하원 특위 "선거 부정 주장, 폭력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또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동안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의회 난입사태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모든 증거와 활동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킨징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스크린에 비친 트럼프 전 대통령

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퍼트리는 데에 법무부를 동원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1·6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한 특위의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동안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영상이 스크린에 영사되고 있다. 특위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오염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

선 패배 이후 제기한 '대선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AP=연합뉴스

강조했다.

조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사기 주장을 퍼트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로, 이번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리즈 체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같이 행동하라는 어떤 사람은 어떤 공적에도 다시는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최근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특위는 여러 차례 공개 청문회에서 일부 측근들의 공개 증언을 통해 의회난입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밝혀내 파문을 일으켰다.

특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백악관 기밀 자료가 부적절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연합뉴스

美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거의 상시 소통"

중·러 동중국해 훈련에 우려... "중, 중립 얘기하며 러와 관계강화"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사전 정보 공유와 관련,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거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 정보 공유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말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부나 국방부, 다른 미국 정부 기관 차원에서 (한국, 일본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 기술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18일 북한의 중거리미사일(MRBM) 발사에 대해서는 재차 규탄한 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에 대한 요청에 답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한 질문에는 "상세 평가를 제공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오는 21-27일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과 관련, "연례 훈련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이라고 하면서도 이번 건을 포함해 행동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거나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도와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면서 "중국이 건설적으로 지렛대를 사용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 급증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전 세계적인 우려"라면서 "우리는 중국이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푸틴, 우크라 침공 3번 미루다 정보기관 설득에 강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차례의 연기 끝에 군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설득에 밀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딤 스킵치크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부국장은 독일 일간 빌트 인터뷰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작전(침공)은 세 차례 연기됐었다"며 "마지막 연기가 2월 중순"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스킵치크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연기 결정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 등과 협의한 결과라고 스킵치크 부국장은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결국 FSB가 푸틴 대통령, 군 인사들을 설득,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뤄졌다고도 말했다.

스킵치크 부국장은 러시아가 원래 계획한 공격 개시 날짜가 언제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실제 러시아의 침공 일자는 2월 24일이다. /연합뉴스

영화 'ET'의 외계인 모형, 소품 경매서 33억원에 낙찰

CG 등장 이전 만들어져...85개 관절로 사실성 구현

고전의 반열에 오른 SF 영화 'ET'에서 실제 촬영에 사용했던 외계인 모형이 할리우드 소품 경매 행사에서 33억 원에 팔렸다.

경매를 주최한 줄리언스 옥션은 19일(현지시간) 영화 'ET'에 등장한 '오리 지널 메카트로닉' 모델이 256만 달러(33억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발표했다.

이 기계 모형은 영화의 주인공인 외계인을 형상화한 소품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탈리아 출신의 특수효과 거장 가를로 람발디가 1981년 제작했다.

줄리언스 옥션은 "85개 기계 관절을 가진 ET 모형은 공학적 걸작"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그래픽(CG) 효과가 등장하기 전 영화 속 외계인의 표정과 목 움직임, 손가락 동작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T'를 연출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외계인 모형에 '영화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33억에 낙찰된 영화 'ET'의 외계인 모형.

"성탄절 기적"... 집 나간 고양이 10년 만에 찾아

"혹시 10년 전에 고양이 한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미에서 2012년 헤어진 고양이를 다시 찾게 된 부부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뉴욕의 밀러 플레이스에 살다가 지난해 스페인 발렌시아로 이주한 리처드와 마리아 프라이스 부부다. 부부는 지난주 뉴욕발 전화 한통을 받

고 2012년 잃어버린 고양이 '미미'를 재회하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미는 프라이스 부부에게 입양된 지 2년 만에 열린 문틈으로 집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부부는 이후 1년 넘게 미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허사였고 이후 다른 고양이 세마리와 함께 지내다 지난해 남편 리처

드는 은퇴하면서 스페인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이달 5일 부부가 살던 밀러 플레이스의 한 주민이 미미를 동물보호소로 데려왔고, 보호소 직원이 미미에게 익숙했던 마이크로칩으로 프라이스 부부에게 연락을 취한 것이다.

리처드는 워싱턴포스트에서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드문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